

내용 요약

튀르크 민족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 진 전설과 민담을 모아 한 권으로 엮은 이 책은 일종의 골동품처럼 희소가치가 매우 크다. 헝가리 학자 I. 꾸노쉬가 아나톨리아를 여행하면서 수집한 이야기를 N. 베이가 번역하여 1889년 '헝가리언 리터러시 소사이어티(Hungarian Literacy Society)'에서 처음 출판했다. 그리고 원본이 출판된지 130년이 되었다. 이후 수많은 판본이 나오면서 원래의 표지와 구성 및 형식 등이 바뀌었는데, 한편으로는 이 책의 문학적 · 문화적 가치를 고려하여 원작의 상태를 보존 및 보호하기 위함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문학의 반열에 들어가는 터키구비문학의 대중성을 제고하기 위함이었다.

도입 부분을 쓴 이 분야의 저명하고 권위 있는 오리엔탈리스트, 벰버리 교수는 이 책에 수록되어 있는 설화가 아나톨리아 지방을 대표하는 구비문학이라고 칭송하면서 유럽이나 러시아의 전설 내지 동화와 차별화한다. 동시에 이 희귀한 보물들이 서구의 문명화로 인해 사라지거나 상실되었다고 진단한다.

이 책에는 17편의 터키 전설 및 동화와 4편의 터키어로 번역된 루마니아 이야기가 영어로 번역되어 있다. 베이가 터키어로 된 전설과 동화를 영어로 번역한 최초의 번역가이기 때문에 베이의 번역을 바탕으로 이 후 수많은 번역이 나왔다. 최초로 소개하는 이야기는 「수사슴이 된 왕자」이야기이다. 전설을 비롯한 구비문학에서 '고귀한' 인간의 동물 '변신' 이야기는 자주 등장한다. '변신'의 이유는 다양하겠지만 동물로 변한 인간이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오는 것이 보통이다. 그리고 마지막작품은 「늙지 않는 청춘, 죽지 않는 삶」을 이야기하는 루마니아 이야기이다.